

2024
고2 문학
미래엔

2024 고2 문학 미래엔 | 2(2)(1) 스노우맨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스노우맨>의 전체 및 부분의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기호를 활용해 부분의 내용과 그 의미를 묻거나, 작품에 제시된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각 부분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작품에 활용된 소재와 전체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 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 사원인 유 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 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남자의 샵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얼어붙은 종이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샵으로 떠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 있던 중국집 스티커가 남자의 구두 위에 툭 떨어졌다. 손바닥만 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샵질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건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였다. 입 안에 따듯한 침이 고였다.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았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남자는 홀린 듯 휴대 전화를 꺼냈다.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밀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자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전화하는 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래서 “여보세요.”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상대가 한 번 더 말한 뒤에야 “거기가 중국집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진성각입니다.”

“혹시, 지금 배달이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여 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여기 주소가…….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가정집이 아니라 대로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근처에 ○○ 병원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거기요. 예, 배달됩니다. 짜장 곱빼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남자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배 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통화하면서 나는 말들은 모두 장난이고 배고픔만 진짜인 것 같았다.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대로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툭 부러져 버릴 것 같았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차가 사라지고 상가들이 문을 닫은 도시는 고요했다. 어디에서도 짜장면을 싣고 오는 오토바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짜장면이 정말 올까. 휴대 전화를 꺼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확인했다. 눈 때문에 출근도 못 하는데 배달이 될 리가 없지. 남자는 눈을 한 주먹 떠서 입에 쑤셔 넣었다가 도로 뱉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다.

그때 오른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다. 그 사람이 샵으로 파내는 것은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보드라운 밀가루인 것 같았다. 노를 젓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안전모에는 ‘신속 배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곤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거짓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껌벅거렸다. 안전모에 쓰인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다.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었다. 눈 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였다.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은 짹짹으로 쪼개졌다. 짜장의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뜻함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젓가락을 쥐고 짜장면을 비비면서 남자는 코를 훌쩍거렸다. 엉거주춤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 줄 법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그런 거라면 남자는 지금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줄줄 흐르는 콧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젓가락질을 했고 그릇까지 먹어 치울 기세로 허겁지겁하다 젓가락을 한 짹 떨어뜨리기까지 했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눈 속을 파헤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남은 짜장면은 젓가락 한 짹으로 굵어 먹었다. 그래도 양념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걸 느낄 겨를도 없었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삼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다. 쉴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 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 섰

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았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 냈다. 말라 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찔끔 새어 나왔다.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삼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일 미터쯤 떨어진 곳에 다시 삼을 꽂았다. 한 삼 떼내고 나자 또 삼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활 정보지 하나나 자전거가 쓰러진 게 아니라 공룡이라도 묻혀 있는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뺐다. 그때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가느다란 목소리의 여자가 부르는 곡인데 멜로디가 익숙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록 벨 소리가긴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듣는 음악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 전화의 진동이 울렸지만 남자는 무시해 버렸다. 음악 소리는 멈추었다가 눈을 퍼내자 다시 시작되었다. 아까와 같은 멜로디였고 눈을 퍼낼수록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남자는 길이 아니라 소리를 찾아서 삼을 움직였다. 손으로 눈을 쓸어 낸 뒤에야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의 휴대 전화였고 공교롭게도 뺨뺨하게 언 양복바지 안에 들어 있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삼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판박이 스티커를 천천히 벗겨 낼 때처럼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언 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쳤다. 입에서는 입김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양복 웃옷과 와이셔츠는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얼어붙었고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 양손 다 눈을 그러쥐고 있어서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반신 일부는 아직도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쌓인 눈의 두께로 봐서는 그가 쓰러진 뒤에도 눈이 계속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다. 눈을 쓸어 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흑시

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이봐. 남자는 유 대리의 몸을 흔들었다. 턱에서 땀이 툭 떨어졌다. 일어나. 휴대 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봐!” 유 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 대리의 전화기를 주워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 눈 속에, 유 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 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 서유미, 「스노우맨」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시각적 대비를 통해 장면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며, 이를 통해 ‘남자’가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냄.
- ② ㉡: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고,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부담스러워하는 ‘남자’의 심리를 드러냄.
- ③ ㉢: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소재를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배달원이 ‘남자’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냄.
- ④ ㉣: 눈사람의 밝은 표정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남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것임을 암시함.
- ⑤ ㉤: 행동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를 통해 유 대리를 발견하여 기뻐하는 ‘남자’의 심리를 드러냄.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 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사원인 유 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 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샅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

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붙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남자의 샅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얼어붙은 종이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샅으로 떠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 있던 중국집 스티커가 남자의 구두 위에 툭 떨어졌다. 손바닥만 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샅질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건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였다. 입 안에 따뜻한 침이 고였다.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았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남자는 흘린 듯 휴대 전화를 꺼냈다.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밀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자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전화하는 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래서 “어보세요.”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보세요.” 상대가 한 번 더 말한 뒤에야 “거기가 중국집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진성각입니다.”

“혹시, 지금 배달이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여 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여기 주소가…….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가정집이 아니라 대로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근처에 ○○ 병원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거기요. 예, 배달됩니다. 짜장 곱빼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남자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배 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통화하면서 나눈 말들은 모두 장난이고 배고픔만 진짜인

것 같았다.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대로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툭 부러져 버릴 것 같았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차가 사라지고 상가들이 문을 닫은 도시는 고요했다. 어디에서도 짜장면을 싣고 오는 오토바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짜장면이 정말 올까. 휴대 전화를 꺼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확인했다. 눈 때문에 출근도 못 하는데 배달이 될 리가 없지. 남자는 눈을 한 주먹 떠서 입에 쑤셔 넣었다가 도로 뱉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다.

그때 오른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다. 그 사람이 삼으로 파내는 것은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보드라운 밀가루인 것 같았다. 노를 젓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안전모에는 '신속 배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곤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거짓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껌벅거렸다. 안전모에 쓰인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다.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었다. 눈 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였다.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은 짹짹으로 쪼개졌다. 짜장의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듯함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젓가락을 쥐고 짜장면을 비비면서 남자는 코를 훌쩍거렸다. 엉거주춤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 줄 법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그런 거라면 남자는 지금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줄줄 흐르는 콧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젓가락질을 했고 그릇까지 먹어 치울 기세로 허겁지겁하다 젓가락을 한 짹 떨어뜨리

어뜨리기까지 했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눈 속을 파헤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남은 짜장면은 젓가락 한 짹으로 굵어 먹었다. 그래도 양념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걸 느낄 겨를도 없었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삼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다. 쉴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듯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 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 섰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세는 농담 같았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 냈다.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짙은 새어 나왔다.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삼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일 미터쯤 떨어진 곳에 다시 삼을 꽂았다. 한 삼 떼내고 나자 또 삼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활 정보지 함이나 자전거가 쓰러진 게 아니라 공룡이라도 묻혀 있는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봤다. 그때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가느다란 목소리의 여자가 부르는 곡인데 멜로디가 익숙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록 벨 소리가긴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듣는 음악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 전화의 진동이 울렸지만 남자는 무시해 버렸다. 음악 소리는 멈추었다가 눈을 피내자 다시 시작되었다. 아까와 같은 멜로디였고 눈을 피낼수록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남자는 길이 아니라 소리를 찾아서 삼을 움직였다. 손으로 눈을 쓸어 낸 뒤에야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의 휴대 전화였고 공공로롭게도 뻗뻗하게 언 양복바지 안에 들어 있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삼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판박이 스티커를 천천히 벗겨 낼 때처럼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언 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쳤다. 입에서는 입김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양복 웃옷과 와이셔츠는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얼어붙었고 ㉠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 양손 다 눈을 그러쥐고 있어서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반신 일부는 아직도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쌓인 눈의 두께로 보서는 그가 쓰러진 뒤에도 눈이 계속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다. 눈을 쓸어 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흑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이봐. 남자는 유 대리의 몸을 흔들었다. 턱에서 땀이 툭 떨어졌다. 일어나. 휴대 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봐!” 유 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 대리의 전화기를 주워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 눈 속에, 유 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 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 서유미, 「스노우맨」

2. ㉠~㉣이 암시하는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출근해야 하는 주인공에게 ‘눈’은 장애물이자 시련이며, 현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삶의 압박감을 의미한다.
- ② ㉡: 눈을 파내고 있는 주인공을 ‘남자’로 지칭한 것은 일반적인 직장인을 대표하기 때문이야.
- ③ ㉢: ‘신속 배달’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일 처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속성을 나타낸다.
- ④ ㉣: 웃는 모습의 ‘눈사람’은 경쟁 사회에서도 불만 없이 잘 적응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바람직한 현대인을 상징한다.
- ⑤ ㉤: 눈 속에 파묻힌 채 발견된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유 대리의 상황을 나타내며 현대인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 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 사원인 유 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 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가)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삼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나)

손바닥만 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삼짱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건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였다. 입 안에 따뜻한 침이 고였다.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았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남자는 홀린 듯 휴대 전화를 꺼냈다.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밀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자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전화하는 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래서 “어보세요.”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보세요.” 상대가 한 번 더 말한 뒤에야 “거기가 중국집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다)

“네, 진성각입니다.”

“혹시, 지금 배달이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여 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여기 주소가…….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가정집이 아니라 대로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근처에 ○○ 병원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거지요. 예, 배달됩니다. 짜장 곱빼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오른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다. 그 사람이 삼으로 파내는 것은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보드라운 밀가루인 것 같았다. 노를 젓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안전모에는 ‘신속 배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곤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거짓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깜빡거렸다. 안전모에 쓰인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였다.

(라)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었다. 눈 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였다.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마)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 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였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 섰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았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 냈다.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짙은 새어 나왔다.

- 서유미, 「스노우맨」

3. (가)~(마)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지치고 쉬고 싶지만, 삼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남자’에게서 비정한 사회에 내몰린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
- ② (나): ‘눈’과 ‘중국집 광고지’의 색채 대비를 통해 ‘남자’가 처한 막막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 ③ (다): 배달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태연히 주문을 받는 ‘중국집 주인’의 모습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과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
- ④ (라): 빠른 속도로 눈을 헤치고 달려오는 ‘배달원’의 모습이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든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아무렇지 않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슬프기도 해.
- ⑤ (마): ‘남자’는 ‘편의점’이 다가가기 힘든 공간이 되어버린 상황을 인식하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어.

4. (가)에서 ‘눈’의 상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순수함
- ② 냉정하고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
- ③ 반복되는 삶 속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
- ④ 현대인들이 느끼는 삶의 부담과 압박감
- 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모른 채하는 현대인의 위선적인 면모

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자’와 ‘배달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유지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 ② ‘배달원의 안전모에 쓰인 문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빨리 일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냉혹한 속성을 나타낸다.
- ③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다.’는 눈 속에 묻힌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표출된 ‘남자’의 불안감으로 볼 수 있다.
- ④ ‘쿠폰 한 장’은 폭설 속에서도 출근을 해야 하는 ‘남자’의 희극적인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로 기능한다.
- 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몽개지고 있는 남자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서술자가 명확하게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결말에 여운을 남기고 있다.

신유형

<스노우맨>의 전체 및 부분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 작품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 작품에 대한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눈’, ‘눈사람’ 등 중요한 소재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의 부분 및 전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 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 사원인 유 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 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샴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붙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남자의 샴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얼어붙은 종이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샴으로 떠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 있던 중국집 스티커가 남자의 구두 위에 툭 떨어졌다. 손바닥만 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샴질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건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였다. 입 안에 따듯한 침이 고였다.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았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남자는 흘린 듯 휴대 전화를 꺼냈다.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밀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자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전화하는 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래서 “여보세요.”라는 굼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상대가 한 번 더 말한 뒤에야 “거기가 중국집 맞습니까?” 하고 물었

다.

“네, 진성각입니다.”

“혹시, 지금 배달이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여 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여기 주소가…….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가정집이 아니라 대로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근처에 ○○ 병원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거기요. 예, 배달됩니다. 짜장 곱빼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남자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배 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통화 하면서 나는 말들은 모두 장난이고 배고픔만 진짜인 것 같았다.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대로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뚝 부러져 버릴 것 같았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차가 사라지고 상가들이 문을 닫은 도시는 고요했다. 어디에서도 짜장면을 싣고 오는 오토바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짜장면이 정말 올까. 휴대 전화를 꺼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확인했다. 눈 때문에 출근도 못 하는데 배달이 될 리가 없지. 남자는 눈을 한 주먹 떠서 입에 쑤셔 넣었다가 도로 뱉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다.

그때 오른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다. 그 사람이 삼으로 파내는 것은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보드라운 밀가루인 것 같았다. 노를 젓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안전모에는 ‘신속 배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곤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거짓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껌벅거렸다. 안전모에 쓰인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다.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였다. 눈 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였다.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

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은 짹짹으로 쪼개졌다. 짜장의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뜻함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젓가락을 쥐고 짜장면을 비비면서 남자는 코를 훌쩍거렸다. 엉거주춤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 줄 법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그런 거라면 남자는 지금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졸졸 흐르는 컵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젓가락질을 했고 그릇까지 먹어 치울 기세로 허겁지겁하다 젓가락을 한 짹 떨어뜨리기까지 했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눈 속을 파헤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남은 짜장면은 젓가락 한 짹으로 굵어 먹었다. 그래도 양념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걸 느낄 겨를도 없었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삼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다. 쉴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6. 윗글을 읽은 후의 감상을 나눈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민숙: ‘남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과장은 눈을 헤치며 출근해야 하는 직원의 안위보다 회사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야.
- ② 은숙: ‘과장’처럼 직원보다 회사 일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자본을 위해 인간을 소외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 ③ 경숙: 주인공을 ‘남자’로 설정한 것은 익명의 인물을 내세워 일반적인 모든 직장인이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을 보여 주기 위한 설정이라고 봐.
- ④ 하숙: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인 눈을 헤치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

는 ‘남자’의 행위는 각박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인간성을 지키려는 저항인 거지.

- ⑤ 지숙: ‘과장’의 독촉에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든 출근을 하기 위해 눈을 파헤치는 ‘남자’의 행위에서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며 적응해 살아가는 오늘날 직장인들의 모습이 보여.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간이 흘러갈수록 출근에 대한 압박이 커져 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일 처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 ③ ㉢: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탐욕적인 인물에 대한 조소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생계를 위해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내야 하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대사이다.
- ⑤ ㉤: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예상치 못한 소재로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한다.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은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압박감과 삶의 부담감을 의미한다.
- ② ‘스노우맨’은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기계적인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
- ③ ‘중국집 스티커’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일 처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속성을 나타내며 작품의 비극성을 강조한다.
- ④ ‘남자’는 눈을 파면서 회사에 출근하려 하나 중간에 지쳐서 멈추는 모습을 통해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물을 상징한다.
- ⑤ 회사로 가는 도중에 눈에 파묻힌 것을 통해 ‘유대리’가 타인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도태되는 인물을 상징한다.

9. 윗글의 결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급격한 배경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역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사건의 결말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명료한 주제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배경을 제시하여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여운을 남기는 방식을 통해 현대인의 삶과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극대화하고 있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장적으로 설정된 상황에 처한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주인공뿐만 아니라 도태된 주변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도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대조되는 등장인물을 설정하여 현대인의 모습을 확립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다양하고 중층적인 시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을 ‘대리’, ‘과장’, ‘부장’ 등 회사의 직급으로 제시하여 서열 중심의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비판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그리면서도 상황에 걸맞지 않거나 희극적 분위기를 유발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형의 시제를 통해 생동감을 주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이 주제를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주인공의 심리를 내적 독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④ 역순행적으로 사건을 구성하여 입체감을 주고 있다.
- ⑤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 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 사원인 유 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 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 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샅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붙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남자의 샅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얼어붙은 종이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샅으로 떠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 있던 ㉠중국집 스티커가 남자의 구두 위에 툭 떨어졌다. 손바닥만 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샅질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건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였다. 입 안에 따뜻한 침이 고였다.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았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남자는 홀린 듯 휴대 전화를 꺼냈다.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밀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자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전화하는 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래서 “어보세요.”라는 굵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보세요.” 상대가 한 번 더 말한 뒤에야 “거기가 중국집 맞습니까?” 하고 물었

다.

“네, 진성각입니다.”

“혹시, 지금 배달이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여 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여기 주소가…….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가정집이 아니라 대로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근처에 ○○ 병원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거기요. 예, 배달됩니다. 짜장 곱빼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남자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배 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통화하면서 나눈 말들은 모두 장난이고 배고픔만 진짜인 것 같았다.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대로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뚝 부러져 버릴 것 같았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차가 사라지고 상가들이 문을 닫은 도시는 고요했다. 어디에서도 짜장면을 싣고 오는 오토바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짜장면이 정말 올까. 휴대 전화를 꺼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확인했다. 눈 때문에 출근도 못 하는데 배달이 될 리가 없지. 남자는 눈을 한 주먹 떠서 입에 쑤셔 넣었다가 도로 뱉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다.

그때 오른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다. 그 사람이 샅으로 파내는 것은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보드라운 밀가루인 것 같았다. 노를 젓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안전모에는 ‘신속 배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곤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거칠막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껌벅거렸다. 안전모에 쓰인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다.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었다. 눈 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였다.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

정하게 놓여 있었다.

손이 열어서 젓가락은 짹짹으로 쪼개졌다. 짜장의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듯함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젓가락을 쥐고 짜장면을 비비면서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었다. 엉거주춤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중략)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삼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중략)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듯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 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 섰다.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담 같았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 냈다.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피가 찔끔 새어 나왔다.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샅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샅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일 미터쯤 떨어진 곳에 다시 샅을 꽂았다. 한 샷 떠내고 나자 또 샷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활 정보지 함이나 자전거가 쓰러진 게 아니라 공룡이라도 묻혀 있는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폈다. 그때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가느다란 목소리의 여자가 부르는 곡인데 멜로디가 익숙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록 벨 소리가긴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듣는 음악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 전화의 진동이 울렸지만 남자는 무시해 버렸다. 음악 소리는 멈추었다가 눈을 떠내자 다시 시작되었다. 아까와 같은 멜로디였고 눈을 떠낼수록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남자는 길이 아니라 소리를 찾아서 샅을 움직였다. 손으로 눈을 쓸어 낸 뒤에야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의 휴대 전화였고 공공롭게도 뽀뽀하게 언 양복바지 안에 들어 있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샅과 손으로 눈을 파

냈다. 판박이 스티커를 천천히 벗겨 낼 때처럼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언 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쳤다. 입에서는 입김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양복 웃옷과 와이셔츠는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얼어붙었고 ㉠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중략) 혹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이봐. 남자는 유 대리의 몸을 흔들었다. 턱에서 땀이 툭 떨어졌다. 일어나. ㉡휴대 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봐!” 유 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 대리의 전화기를 주워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 눈 속에, 유 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 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뭉개지고 있었다.

- 서유미, 「스노우맨」

1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 ② ㉡: 희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이다.
- ③ ㉢: 유 대리의 상황을 나타내며 비극성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 ④ ㉠: 유 대리 역시 남자처럼 출근을 재촉받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 ⑤ ㉢: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결말을 제시하여 비판적 인식을 극대화한다.

13.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 시점을 달리해 입체감을 주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을 회사의 직급으로 제시하여 서열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⑤ 폭설을 뚫고 출근을 강요당하는 회사원의 처지를 통해 경쟁이 극심해진 현대 사회를 표현하고 있다.

14. ‘남자’와 ‘배달원’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계유지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인물을 상징한다.
- ② 힘겨운 노동 속에서도 만족감을 잃지 않는 삶을 상징한다.
- ③ 삶을 자유롭게 즐기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상징한다.
- ④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물을 상징한다.
- 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노력하고 인정도 받으나 결국 도태되는 인물을 상징한다.

15. 밑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을 헤치며 출근하는 ‘남자’의 모습은 각박한 현대인들의 삶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아.
- ② ‘과장의 문자’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어.
- ③ 비현실적인 상황에 나타난 ‘쿠폰 한 장’의 모습은 희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어.
- ④ ‘불 꺼진 편의점’은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인물을 상징하는군.
- ⑤ ‘유 대리’가 눈 속에 파묻힌 모습은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내린 눈이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여 출근할 수 없게 된다. 초조함 속에서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결국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쳐 버린다.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던 남자는 우수 사원인 유 대리 역시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 대리에게 전화해 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빨리 안 오고 뭐 해. 과장의 문자가 도착했다. 어느새 두 시였다. 남자는 샴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눈을 치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쳤다. 눈 속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드러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순간에는 눈이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심지어 숨이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져서 안으로 한없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남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기 때문에 경기하듯 깨어났다.

남자의 샴 끝에 폐지 묶음이 걸렸다. 얼어붙은 종이 뭉치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샴으로 떠내는데 그 사이에 들어 있던 ㉠중국집 스티커가 남자의 구두 위에 툭 떨어졌다. 손바닥만 한 광고지에는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하얀 눈 위에서 그 까맣고 빨간 색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남자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샴질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짬뽕의 냄새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건 아주 먼 옛날에 먹었던 것처럼 아득하고 그리운 맛이였다. 입 안에 따듯한 침이 고였다.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만 먹고 나면 회사까지 갈 힘이 생길 것 같았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닌가. 남자는 흘린 듯 휴대 전화를 꺼냈다.

배달이 될까 의심하면서도 밀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길어지자 절대로 전화를 받을 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가 전화하는 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래서 “여보세요.”라는 굼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을 때 남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상대가 한 번 더 말한 뒤에야 “거기가 중국집 맞습니까?” 하고 물었

다.

“네, 진성각입니다.”

“혹시, 지금 배달이 됩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중국집 주인은 도시가 눈으로 덮여 버렸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태연하게 물었다. 여기 주소가…….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가정집이 아니라 대로변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근처에 ○○ 병원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아, 거기요. 예, 배달됩니다. 짜장 곱빼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남자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배 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통화 하면서 나는 말들은 모두 장난이고 배고픔만 진짜인 것 같았다. 배달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흐르지 않고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대로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깨가 뚝 부러져 버릴 것 같았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차가 사라지고 상가들이 문을 닫은 도시는 고요했다. 어디에서도 짜장면을 싣고 오는 오토바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짜장면이 정말 올까. 휴대 전화를 꺼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확인했다. 눈 때문에 출근도 못 하는데 배달이 될 리가 없지. 남자는 눈을 한 주먹 떠서 입에 쑤셔 넣었다가 도로 뱉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다.

그때 오른쪽 골목 끝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빠른 속도로 눈을 파내면서 걸어왔다. 그 사람이 삽으로 파내는 것은 언 눈이 아니라 가볍고 보드라운 밀가루인 것 같았다. 눈을 젖는 것처럼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리듬감이 넘쳤다. 덕분에 남자와의 거리는 금세 가까워졌다. 안전모에는 ‘신속 배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전모를 쓴 배달원이 남자를 보곤 오른팔을 번쩍 들었다. 거짓말 같은 상황에 남자는 눈만 깜빡거렸다. 안전모에 쓰인 문구 그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었다.

철가방을 내려놓고 안전모를 벗은 배달원은 뜻밖에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였다. 눈 속을 뚫고 오느라 어깨와 신발이 눈투성이였다.

┌ “먹고 그릇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A] “대단하시네요. 이런 날까지 배달을 하시고…….”

└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죠.”

배달원은 그릇을 건네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

는 바쁘게 걸어갔다. 짜장면 위에 ㉡쿠폰 한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손이 얼어서 젓가락은 짹짹으로 쪼개졌다. 짜장의 고소한 냄새와 일회용 용기의 따뜻함은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젓가락을 쥐고 짜장면을 비비면서 남자는 코를 훌쩍거렸다. 엉거주춤하게 서서 짜장면을 먹는 동안 남자는 세상이 자신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다.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 줄 법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그런 거라면 남자는 지금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졸졸 흐르는 컵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젓가락질을 했고 그릇까지 먹어 치울 기세로 허겁지겁하다 젓가락을 한 짹 떨어뜨리기까지 했으니까. 그걸 찾으려고 눈 속을 파헤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남은 짜장면은 젓가락 한 짹으로 굵어 먹었다. 그래도 양념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부끄러움이나 자괴감 같은 걸 느낄 겨를도 없었다.

회사까지의 거리는 이제 삼 분의 일쯤 남아 있었다. 남자는 과장의 문자와 부장의 전화를 한 번씩 받지 않았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남자는 그저 파고 걸었다. 쉴 때는 허리를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거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맞은편에 불 꺼진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 간판을 보자 온장고에 든 따뜻한 캔 커피가 마시고 싶어졌다.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편의점 앞에는 남자의 키만 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동그란 눈과 웃는 입 모양을 한 눈사람이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보고 남자는 잠시 멈춰 섰다.

┌ 눈이 재앙이 되고 눈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곳에서 있는,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김새는 농 [B] 담 같았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입 모양을 흉내 냈다. ㉣말라붙어 있던 입술이 툭 터져서 └ 피가 찰끔 새어 나왔다.

한참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삼 끝에 딱딱한 게 또 걸렸다.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발로 눌러도 삽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 남자는 일 미터쯤

떨어진 곳에 다시 삼을 꽂았다. 한 삼 떠내고 나자 또 삼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활 정보지 함이나 자전거가 쓰러진 게 아니라 공통이라도 묻혀 있는 것 같았다. 하는 수 없이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꺾었다. 그때 어디선가 메아리처럼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가느다란 목소리의 여자가 부르는 곡인데 멜로디가 익숙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록 벨 소리가긴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듣는 음악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 전화의 진동이 울렸지만 남자는 무시해 버렸다. 음악 소리는 멈추었다가 눈을 떠낼자 다시 시작되었다. 아까와 같은 멜로디였고 눈을 떠낼수록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남자는 길이 아니라 소리를 찾아서 삼을 움직였다. 손으로 눈을 쓸어 낸 뒤에야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누군가의 휴대 전화였고 공공로롭게도 뽀뽀하게 언 양복바지 안에 들어 있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삼과 손으로 눈을 파냈다. 판박이 스티커를 천천히 벗겨 낼 때처럼 눈 속에서 검은색 구두와 발, 모직으로 된 양복바지가 차례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언 손으로 조심스럽게 눈을 파헤쳤다. 입에서는 입김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양복 차림의 사람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었다. 양복 웃옷과 와이셔츠는 주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얼어붙었고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는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 양손 다 눈을 그려주고 있어서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반신 일부는 아직도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쌓인 눈의 두께로 보서는 그가 쓰러진 뒤에도 눈이 계속 내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해가 빠르게 기울고 있었다. 몸은 추운데 남자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다.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남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치웠다.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다. 눈을 쓸어 내자 어깨와 목, 안경을 쓴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다. 흑시라도 맥박이 뛰는지 확인하려던 남자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 속에서 화석이 된 사람은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던 유 대리였다. 이봐. 남자는 유 대리의 몸을 흔들었다. 턱에서 땀이 툭 떨어졌다. 일어나. 휴대 전화에서 다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봐!” 유 대리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 대리의 전화기를 주워 귀에 댔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 눈 속에, 유 대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남자의 입 안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해가 기울고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졌다. 이대로 한 시간 정도만 파고 가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회사 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파고 온 길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기에도 다시 돌아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게다가 남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유 대리의 옆에 쫄고리고 앉아서 숨을 골랐다. 졸음이 밀려왔지만 졸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다. 눈 더미는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공원에 있는 나무 벤치 같았다. 시야가 구겨진 종이처럼 몽개지고 있었다.

- 서유미, 「스노우맨」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현실적인 듯한 사건 전개에 계기가 되고 있다.
- ② ㉡: 시간의 흐름이 남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희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이다.
- ④ ㉣: 작품의 제목과 연결하여 희망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 ⑤ ㉤: 현대인의 고통과 상처를 나타낸다.

17.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현대인의 삶의 문제가 드러난다.
- ② [A]에서는 대비되는 인물들의 태도를 보여 주어 현대 사회가 경쟁 사회임을 강조한다.
- ③ [B]에서는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초래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 ④ [B]에서는 현대인의 무리한 도전으로 인한 좌절이 감각적인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⑤ [A]와 [B] 모두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 인물의 고통을 보여 주며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은 추상적 개념인 '시간의 흐름'을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로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부담스러워하는 '남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① ㉠은 '하얀' 눈과 '까맣고 빨간' 광고지의 시각적인 대비를 통해 장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남자'가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의 '쿠폰 한 장'은 눈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남자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소재로 제시되었지만, 이를 통해 배달원이 '남자'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의 '눈사람'의 웃는 얼굴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억지웃음을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남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은 '남자'의 행동을 고고학자에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이는 '남자'가 눈 속에 묻힌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안함을 느끼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유 대리를 발견하여 기뻐하는 '남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정답 ④

㉠의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억지웃음을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으로, 경쟁 사회에서도 불만 없이 잘 적응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바람직한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의 '눈'은 출근을 해야 하는 '남자'에게 장애물이자 시련으로,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압박감과 삶의 부담감을 의미한다.

② ㉠의 특정한 이름이 없이 '남자'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일반적인 직장인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

③ ㉠의 안전모에 쓰여 있는 '신속 배달'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해내야 하는 현대인의 기구한 운명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에서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가 흰 눈과 시각적으로 대비되어 유 대리에게 일어난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3. 정답 ②

(나)에서는 '하얀' 눈과 '까맣고 빨간' 광고지의 시각적인 대비를 통해 장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남자'가 처한 막막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가)에서는 출근하기 위해 삼을 쥐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 극심한 경쟁 사회에 내몰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③ (다)에서는 배달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임에도 태연히 주문을 받는 '중국집 주인'의 모습을 통해 성과 중심의 경쟁적인 현대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④ (라)에서 빠른 속도로 눈을 헤치고 달려오는 '배달원'의 모습은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⑤ (마)에서 '남자'가 편의점 간판을 보면서 '얼마 전까지 일상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손이 닿지 않는 저 눈 밑에 파묻혀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4. 정답 ④

'눈'은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압박감과 삶의 부담감을 의미한다.

①, ②, ③, ⑤ '눈'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④

'쿠폰 한 장'은 눈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남자의 비극적인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소재로, 희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을 한다.

① '배달원'은 폭설의 상황에서도 짜장면을 배달하고 있고, '남자'는 회사에 출근을 위해 눈을 파고 있다. 이처럼 '배달원'과 '남자' 모두 생계유지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상징한다.

② '배달원의 안전모에 쓰인 문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일 처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속성을 나타낸다.

③ '고고학자처럼 손이 떨렸다.'는 '남자'가 눈을 치우다가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신원과 생사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보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⑤ 이 작품은 '남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줄음 때문에 서서히 눈이 감기는 '남자'의 모습을 묘사하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완의 결말은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6. [정답] ④

허리를 넘어설 만큼 쌓인 눈을 헤치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남자'의 행위는 자신이 '아침, 점심도 거른 채 샅질을 했다는 걸 깨달으면서' 회사까지 갈 힘을 내기 위한 것이므로, 각박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인간성을 지키려는 저항으로 보기 어렵다.

① 폭설이 내린 상황에서도 '남자'에게 출근을 강요하는 과장의 행동을 통해 직원의 안위보다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② 직원의 안위보다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과장'의 모습을 통해 인간을 노동하는 기계 정도로 취급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한 면을 엿볼 수 있다.

③ 주인공을 익명의 '남자'로 설정한 것은 이것이 특정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줌을 의미한다.

⑤ 출근에 대한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다 결국 눈을 파헤치며 출근하는 '남자'의 모습은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기계적인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7. [정답] ③

㉠은 눈 속을 뚫고 배달을 온 중년 배달원에 대한 '남자'의 놀라움의 표현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탐욕적인 인물에 대한 조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은 추상적 개념인 '시간의 흐름'을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로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시

간의 흐름을 부담스러워하는 '남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② ㉢의 '배달원의 안전모에 쓰인 문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일 처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속성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④ ㉣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계유지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대사이다.

⑤ ㉤은 눈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남자의 비극적인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소재로 기능한다.

8. [정답] ③

'중국집 스티커'는 눈 더미를 헤치고 짜장면이 배달되는,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일 처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은 안전모에 쓰여 있는 '신속 배달'이라는 문구이다.

① '눈'은 출근을 해야 하는 '남자'에게 장애물이자 시련으로,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압박감과 삶의 부담감을 의미한다.

② 이 작품에서 '눈사람'은 폭설 속에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고, '남자'는 경쟁 사회를 살며 별다른 불만 없이 순응하며 살고 있다. 이를 통해 작품의 제목인 '스노우맨'은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기계적인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남자'는 눈을 치우고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지만 출근을 못한다는 점에서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물이다.

⑤ '유 대리'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수 사원으로 인정도 받았으나, 결국 도태되는 인물이다.

9. [정답] ⑤

이 작품은 '남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줄음 때문에 서서히 눈이 감기는 '남자'의 모습을 묘사하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미완의 결말은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① 이 작품의 주된 배경은 눈이 쌓인 도시의 거리

로, 급격한 배경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②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③ 이 작품은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결말을 제시하여 비판적 인식을 극대화한다.

④ 이 작품은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여 비극적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 [정답] ③

눈을 파기 힘겨워 하는 ‘남자’와 능숙하게 눈을 파며 등장하는 ‘배달원’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지만, 결국 두 인물 모두 생계유지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온 유 대리와의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남자가 결국 동일한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인의 모습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고 다양하고 중층적인 시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작품은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장적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해당 상황에 처한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묘사하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이 작품은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남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유능함을 인정받지만 결국 도태되고 마는 ‘유 대리’의 모습도 보여 주며 경쟁 사회에 내몰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

④ 이 작품은 등장인물을 ‘대리’, ‘과장’, ‘부장’ 등 회사의 직급으로 제시하여, 서열 중심의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⑤ 이 작품은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장적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희극적 소재 등을 활용하면서, 부정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1. [정답] ⑤

이 작품은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장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① 이 작품의 시제는 과거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②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도시의 거리로, 공간적 배경이 주제를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과 심리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④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12. [정답] ①

㉠은 눈 더미를 헤치고 짜장면이 배달되는,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계기가 된다.

② ㉡은 눈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남자의 비극적인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소재로 기능한다.

③ ㉢은 ‘오래전에 흘린 피처럼 굳어 있었다.’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검붉은색의 실크 넥타이’가 흰 눈과 시각적으로 대비되어 유 대리에게 일어난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④ ㉣에서 ‘유 대리’의 휴대 전화가 계속 울리는 것으로 보아, ‘유 대리’ 역시 출근을 재촉받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⑤ ㉤에서는 ‘남자’가 죽은 ‘유 대리’ 옆에서 서서히 잠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결말을 제시하여 비판적 인식을 극대화하고 있다.

13. [정답] ③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 시점을 달리하고 있지 않다.

① 이 작품은 ‘남자’가 죽은 ‘유 대리’ 옆에서 서서히 잠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결말을 제시하여 비판적 인식을 극대화하고 있다.

② 이 작품은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장적으로 상황을 설정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이 작품은 등장인물을 ‘대리’, ‘과장’, ‘부장’ 등 회사의 직급으로 제시하여, 서열 중심의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낸다.

⑤ 폭설을 뚫고 출근을 강요당하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 현대의 비정한 경쟁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4. [정답] ①

‘배달원’은 폭설의 상황에서도 짜장면을 배달하고 있고, ‘남자’는 회사에 출근을 위해 눈을 파고 있다. ‘눈이 와도 먹고는 살아야’ 한다는 ‘배달원’의 말처럼 ‘배달원’과 ‘남자’ 모두 생계유지를 위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상징한다.

- ② ‘남자’와 ‘배달원’의 모습이 힘겨운 노동 속에서도 만족감을 잃지 않는 삶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남자’와 ‘배달원’의 모습이 삶을 자유롭게 즐기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배달원’은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물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남자’는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물이며, ‘배달원’은 사회에서 인정받거나 도태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15. **정답** ④

‘불 꺼진 편의점’은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인물을 상징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눈 속을 헤치고 출근을 하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 기계적인 노동에 내몰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눈이 많이 온 상황에서 ‘남자’에게 온 ‘과장의 문자’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압박을 상징한다.
- ③ 눈이 많이 내린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쿠팡 한 장’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희극적인 성격의 소재이다.
- ⑤ ‘유 대리’는 회사에서 인정받은 우수 사원이었으나, 결국 눈 속에 파묻혀 죽음으로써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6. **정답** ④

웃는 얼굴의 ‘눈사람’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억지웃음을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이다. ‘스노우맨(눈사람)’이라는 제목은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지만, 결말의 비극적 반전을 위한 장치이다.

- ① ㉠은 눈 더미를 헤치고 짜장면이 배달되는, 비현

실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계기가 된다.

- ② ㉡은 추상적 개념인 ‘시간의 흐름’을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로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부담스러워하는 ‘남자’의 심리를 드러낸다.
- ③ ㉢은 눈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남자의 비극적인 상황과 어울리지 않아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소재로 기능한다.
- ⑤ ㉤은 힘든 상황에서도 억지웃음을 지어야 하는 현대인들의 비애와 상처를 보여 준다.

17. **정답** ①

[A]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에 내몰린 현대인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는 ‘배달원’은 능숙하게 눈을 헤치며 배달을 하여 ‘남자’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현대 사회가 경쟁 사회임을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B]에서 현재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본질적 원인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지 않다.
- ④ [B]에서 ‘눈사람’의 웃음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밝으며 ‘남자’는 ‘눈사람’의 웃는 표정을 흉내 내다 입술에서 피가 난다. 이러한 모습은 힘든 현실 속에서 억지웃음을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의 비애와 상처를 보여 주는 것이지, 현대인의 무리한 도전으로 인한 좌절이 감각적인 표현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A]와 [B] 모두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 인물의 고통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18. **정답** ②

㉞는 추상적 개념인 ‘시간의 흐름’을 ‘어깨 위에 차곡차곡 쌓였다.’로 시각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이 남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남자의 배고픔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다.

- ① ㉠는 ‘하얀’ 눈과 ‘까맣고 빨간’ 광고지의 시각적인 대비를 통해 장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③ ㉣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일 처리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속성을 나타낸다.
- ④ ㉤는 출근을 독촉하는 회사의 연락과는 다른, 진

서지정보

저자 정준희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6204-6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4.05.15

가격 1,500원

